

■ 광주 남구, 관내 등록 장애인 ‘권리구제’ 조사했더니...

## 각종 지원혜택 몰랐던 1578명 권리 찾았다

### 3주간 1만1311명 대상 일제 조사...14% 발굴 결실 진단서 발급·검사비 지원 등 15가지 서비스 분야

광주 남구가 관내 등록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권리구제 일제 조사에 나서 큰 결실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는 12일 “관내 등록 장애인 1만1,311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 권리구제 대상자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종 서비스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등록 장애인 1,578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관내 등록 장애인의 14% 가량이 이번 조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 권리구제 대상자 발굴 조사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을 비롯해 장애 재판정 대상자, 청각 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유효기간 만료,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신청 가능자, 장애인 의료비,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 등 15가지 서비스 분야였다.

조사 결과 각종 서비스 누락자 및 서비스 지원금액 총액은 1,578명에 약

3,356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까닭은 제도 변경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감면 혜택의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등의 사유가 많았다.

우선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은 지난해까지 두 항목간 중복 지원이 되지 않았으나, 정부에서 올해부터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을 완화해 재판정을 신청한 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까지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 모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남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 37명을 발굴했으며, 이들은 1인당 최대 14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한가지 사례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유효기간 만료이다.

장애인 복지카드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을 넣어 카드를 발급받는데,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카드 재발급에 소요 기간이 필요한데다 미리 재발급을 받아야 불이익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384명이 만료 전 사전 신청을 통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이 어갈 수 있게 됐다.

남구 관계자는 “관내 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하면서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해 적극 안내하고, 향후에도 장애인 권리구제 찾기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아 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 담양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 중간검사

지난 5월과 현재 비교 모니터링

담양군은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 70명을 대상으로 중간검사를 실시한다.

중간검사를 통해 지난 5월 실시한 사전검사 결과와 현재 상태를 비교하고, 식사·운동일기, 걸음 수 등의 모

니터링을 바탕으로 의사, 간호사, 운동처방사, 영양사, 코디네이터 등 전문 인력이 개개인에 맞춘 1:1 상담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대상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건강 미션에 참여하거나 앱을 통한 다양한 활동으로 포인트를 적립해 상위 랭킹에 오르면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자들의 실천의지를 북돋우고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 장흥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직무심화교육 실시

북부권 5개읍면 수행인력 64명 대상 총 4회 진행

장흥종합사회복지관(김영석 관장)은 최근 복지관 3층 대회의실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직무심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당초 집합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 및 장기화로 수행기관 자체교육 및 온라인 강의로 대체해 진행했다.

직무교육은 북부권 5개읍면 수행인력 생활지원사 6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여 1회 15명~16명 인원을 기준으로 총 4회기에 걸쳐 교육을 진행했다.

김영석 관장은 직접강의를 통해 업무에 직접적으로 접목할 수 있도록 이론을 쉽게 설명한 실무 중심



의 교육이 나갔다.

김영석 관장은 “현장에서 수행하는 생활지원사들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이 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어르신께 필요한 인지강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장애인개발원,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전문강사 양성 19일까지 접수... 30명 양성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최경숙, 이하 개발원)은 13일부터 19일까지 ‘2020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시범사업(이하 강사양성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어린이집 등의 소속직원 및 학생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연 1회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교육대상이 유아부터 성인까지 광범위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수료한 강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개발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 인력을 구축하고, 2021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본 사업 설계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강사양성과정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 분야 현장 전문가 3년 이상, 최근 3년 이내 장애 인식개선교육 강의 경험 5회 이상 보유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 수준을 갖춘 자이다.

신청기간은 13일부터 19일 오후 5시까지로, 개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s://www.koddi.or.kr/>)에서 신청서, 활동계획서 등 공고문에 안내된 양식을 다운로드 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cindy317@koddi.or.kr)로 제출하면 된다.

개발원은 이번에 모집한 30여 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오는 10월~11월 중에 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강생은 장애 인식개선의 지향점, 장애 관련 정책 이해 및 유아·학생·성인 대상별 맞춤형 교육 이론을 담은 베이직(BASIC) 과정, 비대면 교육 플랫폼 활용 코칭 등 트렌드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강사 브랜딩 스페셜(SPECIAL) 과정, 강의 코칭 및 스킬을 향상 시키는 코칭(COACHING) 과정을 통해 전문강사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2021년 본 사업 운영에 필요한 표준 커리큘럼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교육 과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고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관심을 가진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란다”고 전했다.

## 내륙의 바다 ‘장성호’

수변 데크길(왼쪽)

옐로우출렁다리

NEW  
황금빛출렁다리

수변 데크길(오른쪽)

장성호  
영로우 시티